

# 초급 피아노 학습자를 위한 창작즉흥연주 교육 자료 개발

권 수 미

## 1. 도입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2) 연구 방법 및 절차

## 2. 이론적 배경

- 1) 즉흥연주의 정의와 특징
- 2) 피아노 학습에서 즉흥연주의 교육적 의의
- 3) 즉흥연주 지도를 위한 일반적인 교수법

## 3. 본론

- 1) 초급 피아노 교재의 구성 및 개요
- 2) 연구대상 교재에서 다루고 있는 창작즉흥 연주활동 유형 분석
- 3) 초급 피아노 학습자를 위한 즉흥연주 교육 자료 예시

## 4. 결론 및 제언

www.kci.go.kr

## 개 요

본 연구는 최근 국내외에 널리 알려진 어린 초급 학습자를 위한 피아노 교재 중 창작즉흥연주 활동을 체계적으로 다루고 있는 교재를 선택하여, 즉흥연주 활동유형을 분석한 후, 우리나라 음악적 소재를 바탕으로 초급 피아노 학습자용 즉흥연주 교육 자료의 예시를 제공하는 것에 목적을 둔다. 이를 위하여 2001년에 발표된 이연경의 논문에서 대학 기초 피아노 과정의 창작즉흥연주 지도를 위한 학습유형 및 세부 활동 총 23개를 살펴보고, 이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미취학 아동이나 초등학생들을 위한 즉흥연주 활동에 적합한 학습유형을 6가지 음악요소와 2가지 지도방법 등 총 8가지 세부 유형으로 재구성하였다. 또한 우리나라 음악적 요소를 활용하여 초급 피아노 학습자를 위한 즉흥연주 교육 자료를 개발하여 제시하였다. 제언에서는 피아노 교육에서 창작즉흥연주가 레퍼토리 학습 이외에도 초견, 이론, 테크닉 학습 활동들이 병행되고, 개인지도보다는 그룹지도의 학습 환경을 조성하고, 초급학습자 안에 내재되어 있는 음악적 지식이나 기술 수준을 정확히 파악하여 학습자료와 교수방법을 제시할 경우 즉흥연주 학습이 효과적이라고 밝히고 있다.

주제어: 즉흥연주, 창작활동, 피아노 교재, 피아노 교육, 피아노 페다고지, 음악교육

## 1. 도입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우리 인간의 삶은 매일 해결해야 하는 문제의 연속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수행되는 창조적인 활동은 인간의 보편적인 욕구이다. 소이어(Sewyer)<sup>1)</sup>는 이 과정에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메카니즘이 대부분 즉흥적이라고 말한다. 창조성은 소수의 특정인에게만 부여되는 재능이 아니라 인간 누구나 가지고 태어나는 능력이다. 이런 인간의 내재적인 창조성은 적합한 교육환경과 후천적인 노력으로 개발된다.<sup>2)</sup> 따라서 현대 모든 분야의 교육이 창의적 인간성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인간이 경험하는 예술로서의 창의적 음악활동에는 작곡, 연주, 즉흥연주, 그리고 음악을 듣고 이해하는 분석적 활동들이 포함된다. 이 모든 활동들은 각기 서로 다른 메커니즘을 통해 수행되지만, 공통적으로 소리를 인지하고 지각하여 내면적으로 성찰한 후 이를 서로 다른 독특한 방법으로 표현하는 소통의 과정을 수반한다.<sup>3)</sup> 하지만 이러한 창의적인 음악활동은 대학의 작곡 전공자나 전문 음악가의 영역에 해당되는 행위라고 잘못 인식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음악교육을 통한 창의성 개발은 그 대상이 단지 음악 전공생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초급 단계부터 모든 학습자를 대상으로 연주, 가창, 감상, 창작 등 음악활동의 모든 영역에서 활발히 적용되어야 하는 기초 교육이다.

1) Keith Sawyer, "Improvised Conversations: Music, Collaboration, and Development," *Psychology of Music* 27/2 (1999), 92-216.

2) Dorothy Hickok and James A. Smith, *Creative Teaching of Music in the Elementary School* (Boston: Allyn & Bacon, 1974), 67-69.

3) 정진원, "음악적 창의성: 활동유형별 특성 및 사고과정을 통한 재조명," 『예술교육연구』 8/3 (2010), 77-94.

작곡이 음악을 창조하는 과정에만 초점을 맞춘다면, 즉흥연주는 창조와 연주 두 과정이 동시에 발현되는 활동이다. 즉흥연주는 음악에 대한 사고와 연주가 동시에 일어나는 예술로서, 이미 학습된 음악적 지식이나 개념을 즉각적으로 조작하여 표현하는 즉흥적 작곡으로도 설명된다.<sup>4)</sup> 이런 관점에서 볼 때, 학생들에게 즉흥연주를 지도하는 것은 그들이 상위단계의 음악적 사고를 할 수 있는 기술을 습득하게 해 주는 것이다. 하지만 그동안 즉흥연주 학습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는 연구가 술하게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공교육 현장에 있는 교사들은 그들이 즉흥연주를 교육 받은 경험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를 지도하는 것에 대해 상당히 부담스러워 했다.<sup>5)</sup>

이와 같은 문제점은 우리나라 주요 음악 사교육기관인 피아노 교육 현장에서도 유사하게 발견된다. 일부 즉흥연주학습이 포함된 외국 피아노 교재가 번역되어 국내에 소개되고는 있지만 국내 피아노 교육자나 학습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지 못하고 있으며, 국내에서 개발된 피아노 교재들 중에는 즉흥연주학습을 체계적으로 제공한 사례가 아직까지 전무한 상황이다. 이연경<sup>6)</sup>과 로이드(Llyod)<sup>8)</sup>는 이미 30-40여 년 전에 피아노 교육에서 이루어지는 즉흥연주의 교육적 의의와 이에 대한 인식 부족의 문제를 지적하였다. 하지만 시간이 한참 경과한 지금까지도 이 문제는 크게 개선되어 보이지 않는다.

4) Bill Dobbins, "Improvisation: An Essential Element of Musical Proficiency." *Music Educators Journal* 66/5 (1980), 36-41.

5) 정재은, "달크로즈 교수법에서의 즉흥연주의 의미," 『음악교육연구』 30 (2006), 177-199.

6) 이연경, "피아노 지도의 즉흥연주 교수방안에 관한 연구," 『음악교육연구』 10 (1991), 31-78.

7) 이연경, "대학 기초 피아노 과정에 창작즉흥연주 지도를 위한 학습유형에 대한 연구," 『음악교육연구』 21 (2001), 95-136.

8) Ruth Lloyd and Norman Lloyd, *Creative Keyboard Musicianship: Fundamentals of Music and Keyboard Harmony through Improvisation* (New York: Dodd, Mead, 1975), 103-105.

즉흥연주가 실용성을 지니며 질서 있는 형태로 표현되어지는 체계적인 음악 창조 과정임에도 불구하고, 즉흥연주를 지도하기 위한 교수법의 애매모호함이 교사들로 하여금 다루기 어려운 음악 활동으로 오인되어 왔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sup>9)</sup>

국내 초급 피아노교육에서 창작즉흥연주와 관련된 연구는 지극히 제한적으로 이루어졌으며, 이연경<sup>10)11)</sup>의 연구가 유일하다. 그는 기초 피아노과정에서 창작즉흥연주 지도를 위한 학습유형을 크게 네 가지로 분류하고 총 23가지의 세부 활동을 제시하였다. 하지만 분석한 연구대상이 약 20-30년 전에 발표된 외국대학의 클래스피아노 교재 중심이다 보니 일반적으로 초급학습자라 일컫는 미취학아동이나 초등학생 피아노 학습자에게 모두 적용하기 어렵다. 당시 연구에서 이연경은 피아노 교육에서 즉흥연주 지도를 위한 다양한 교수전략과 교육 자료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외국 교재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음악을 학습소재로 포함하는 피아노 교재 개발을 제안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최근 국내외에 널리 알려진 어린 초급 학습자용 피아노 교재 중 창작즉흥연주 활동을 체계적으로 다루고 있는 교재를 선택하여 그 유형을 분석한 후, 우리나라 음악적 소재를 바탕으로 초급 피아노 학습자를 위한 즉흥연주 교육 자료 개발을 목적으로 한다.

9) Ruth Llyod and Norman Llyod, *Creative Keyboard Musicianship: Fundamentals of Music and Keyboard Harmony through Improvisation*, xi. 이연경, “대학 기초 피아노 과정에 창작즉흥연주 지도를 위한 학습유형에 대한 연구,” 9에서 재인용.

10) 이연경, “피아노 지도의 즉흥연주 교수방안에 관한 연구,” 95-136.

11) 이연경, “대학 기초 피아노 과정에 창작즉흥연주 지도를 위한 학습유형에 대한 연구,” 95-136.

## 2) 연구 방법 및 절차

### (1) 연구대상

국내외 음악관련 도서 및 악보를 판매하는 온라인 사이트 [www.sheetmusicplus.com](http://www.sheetmusicplus.com)<sup>12)</sup>에서 가장 많이 판매되는 ‘Top 99 Piano Method Series’ 목록 중 일반적으로 초급 학습자라 불리는 미취학아동과 초등학생을 위한 피아노 메소드들의 구성 및 목차를 모두 분석한 후 즉흥연주 활동을 포함하고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였다. 이 중 즉흥연주 활동을 커리큘럼 안에 단계별로 모두 포함하고 있는 3종의 초급 피아노 교재에서 총 16권을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본 연구의 구체적인 연구대상은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연구대상

초등학생 대상 초급 피아노 메소드	출판사	저자	발행연도	권수
<i>Celebrate Piano!</i> 레슨교재 Level 1, 2, 3, 4, 5, 6	The Frederick Harris Music Company	C. Albergo J. Mitzi Kolar M. Mrozinski	2003	6
<i>The Music Tree</i> 레슨교재 예비단계, Level 1, 2A, 2B, 3, 4	Summy -Birchard	F. Clark, L. Goss, S. Holland	1993	6
<i>Music for Piano</i> 창작을 위한 병행교재 'Creative Music' Level 1, 2, 3, 4	Lee Roberts Music Publications	R. Pace	1962	4

12) “Top 99 Piano Method Series,” <http://www.sheetmusicplus.com>, 검색일: 2018.10.15.

## (2) 연구방법

문헌 연구를 통하여 즉흥연주의 교육적 의의와 특징 그리고 즉흥연주 지도를 위한 일반적인 교수법을 고찰하고자 한다. 본 연구를 위하여 심도 있게 살펴 본 이연경의 ‘대학 기초 피아노 과정에 창작즉흥연주 지도를 위한 학습유형에 대한 연구’<sup>13)</sup>는 약 20-30년 전에 국내대학의 기초 클래스 피아노 교재로 사용되었던 것 중, 특별히 즉흥연주 학습을 비중 있게 다루고 있는 외국 교재들을 중심으로 다양한 유형의 즉흥연주 기법을 조사하고 분석한 연구이다.

당시 연구대상인 분석 교재 목록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은 점은 아쉽지만, 피아노 교육에서 활용할 수 있는 즉흥연주 세부 유형을 국내에서 거의 최초로 언급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그는 클래스피아노에서 다룰 수 있는 즉흥연주 유형을 크게 4가지로 대분류하고 각 유형별로 제시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즉흥연주 활동을 총 23개로 제시하였는데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표 2).

[표 2] 이연경의 창작즉흥연주 지도를 위한 학습유형 분류표

학습유형 대분류	학습활동 세부 분류	세부활동 번호
I. 선율을 중심으로 하는 창작즉흥연주 학습유형	제시된 리듬 패턴에 의한 선율 즉흥연주	I-1
	5음음계에 기초한 선율 즉흥연주	I-2
	문답형 방식에 의한 선율 즉흥연주	I-3
	지정한 음악적 요소에 따른 선율 즉흥연주	I-4
	제시된 화음 기호에 의한 선율 즉흥연주	I-5
	동기 전개 기법에 의한 선율 즉흥연주	I-6

13) 이연경, “대학 기초 피아노 과정에 창작즉흥연주 지도를 위한 학습유형에 대한 연구,” 95-136.

학습유형 대분류	학습활동 세부 분류	세부활동 번호
II. 적용개념에 의한 창작즉흥연주 학습유형	리듬요소에 의한 창작즉흥연주	II-1
	음정요소에 의한 창작즉흥연주	II-2
	화음요소에 의한 창작즉흥연주	II-3
	음계요소에 의한 창작즉흥연주	II-4
	형식요소에 의한 창작즉흥연주	II-5
	성부조직요소에 의한 창작즉흥연주	II-6
III. 교재악곡을 활용하는 즉흥연주 학습유형	창의적 악보읽기	III-1
	작곡가 스타일로 즉흥연주	III-2
	창의적 피아노 앙상블	III-3
	변주기법에 의한 즉흥연주	III-4
	바로크식 선율 장식 기법에 의한 즉흥연주	III-5
IV. 비전통적 음악기법에 의한 창작 즉흥연주 학습유형	음향작품 창작즉흥연주	IV-1
	조작된 피아노 기법에 의한 건반 창작곡 만들기	IV-2
	우연성 음악에 의한 창작즉흥연주	IV-3
	12음 기법에 의한 선율 즉흥연주	IV-4
	재즈기법에 의한 즉흥연주	IV-5
	기타 20세기 작곡기법을 활용한 창작즉흥연주	IV-6

본 연구의 분석대상으로 삼은 3종 16권의 초급 피아노교재들의 구성 및 개요를 조사한 후 각 교재에서 다루는 창작즉흥연주 활동유형을 (표 2)를 바탕으로 분석할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초급자용 피아노 교재에 적용할 수 있는 즉흥연주 활동 유형을 재구성하고, 그들을 위한 즉흥연주 교육 자료 예시를 개발하고자 한다.

## 2. 이론적 배경

### 1) 즉흥연주의 정의와 특징

음악에서의 즉흥연주는 ‘동시에 음악을 생각하고 연주하는 예술’로 정의한다. 일반적으로 즉흥연주라면 계획하지 않고 무작위적인 활동을 떠올리지만, 실제 즉흥연주는 내면화된 음악적 배경지식을 가지고 사전 계획 없이 즉석에서 음악적 아이디어를 이해하고 표현하는 음악내용의 유의미한 창작 행위이다. 이러한 점에서 즉흥연주는 미리 계획되고 준비되어지는 작곡과 차이가 있다.<sup>14)15)16)</sup>

연주자의 음악적 사고가 시간적인 제약 안에서 발현되는 즉흥연주에 대해 프레스싱(Pressing)<sup>17)</sup>은 심리학적인 측면에서 연주자의 내적인 요소와 외적인 요소의 영향을 받아 이루어진다고 보았다. 우선 내적인 요소란 즉흥연주를 할 때 무의식으로 발현되는 음악적인 배경지식을 말한다. 예를 들어, 연주자가 의식적이고 의도적인 훈련으로 습득한 음악적 지식, 기술, 레퍼토리, 문제해결 능력 등이 이에 해당되는데, 이것들이 즉흥연주에 활용된다는 것이다. 반면에 외적인 요소는 즉흥연주를 할 때 의식적으로 구체적이고 특정한 방향으로 연주를 끌고 가도록 이끌어 주는 (비)음악적인

14) Christopher D. Azzara, “An Aural Approach to Improvisation: Music educators can teach improvisation even if they have not had extensive exposure to it themselves. Here are some basic strategies,” *Music Educators Journal* 86/3 (1999), 21-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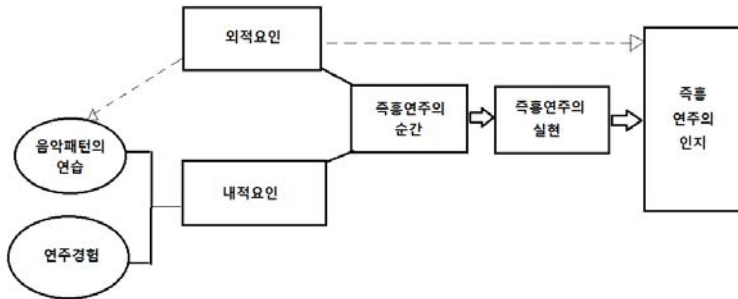
15) Timothy S. Brophy, “Developing Improvisation in General Music Classes,” *Music Educators Journal* 88/1 (2001), 34-53.

16) 최미영, “고든의 오디에이션 이론에 기초한 초등음악수업에서의 즉흥연주지도,” 『교사교육연구』 53/3 (2014), 430-446.

17) Jeff Pressing, “Psychological Constraints on Improvisational Expertise and Communication,” *In the Course of Performance: Studies in the World of Musical Improvisation*, edited by B. Nettl and M. Russell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98), 47-67.

형태를 일컫는다.<sup>18)</sup> 예를 들어, 재즈 연주에 있어서 외적인 요소란 32마디의 음악 구조, 화성 진행, 그리고 리듬 패턴의 순환이 바로 그것이다. 이 외적인 요소는 연주자로 하여금 상황에 적합한 음악적 선택과 가이드라인을 조절하게 함으로써 감상자의 음악적 이해를 도울 수 있는 지각의 틀로 기능한다.<sup>19)</sup> 이처럼 즉흥연주를 잘하기 위해서는 음악의 내적인 요소와 외적인 요소가 동시에 작동해야 하며, 외적인 요소는 지속적인 노출과 반복에 의해 학습자의 내적인 요소로 동화되어 간다((그림 1)).<sup>20)</sup>

(그림 1) 즉흥연주에 필요한 음악의 내적인 요소와 외적인 요소의 관계도



한 심리학 문헌에 따르면, 전문 즉흥연주자들이 즉흥연주에 몰입할 때 자아를 잊고 무아지경에 이르는 상황에 도달하는 때가 있다고 한다. 칙센트미하이(Csikszentmihalyi)와 리치(Rich)<sup>21)</sup>는 이때를 ‘몰입의 상태(Flow

18) Bruno Nettl, “Thoughts on Improvisation: A Comparative Approach,” *Musical Quarterly* 60 (1974), 1-19.

19) John A. Sloboda, *The Musical Mind: The Cognitive Psychology of Music* (Oxford: Clarendon Press, 1985), 119-120.

20) Barry J. Kenny and Martin Gellrich, “Improvisation,” *The Science and psychology of Music Performance: Creative Strategies for Teaching and Learning*, edited by R. Parncutt and G. E. McPherson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2002), 117-134.

21) Mihaly Csikszentmihalyi and Grant Rich, “Musical Improvisation: A Systems

state)’라고 정의하는데, 이것은 즉흥연주를 이끌고 가는 음악의 외적요소 일 뿐만 아니라 연주자 자아의 인지적인 한계를 뛰어 넘는 상태라고 진단 하면서 이러한 즉흥연주 상황을 지지한다. 일부 음악교육학자들은 즉흥연주의 성패가 음악 내적 요소들 간의 관계에 대한 인식, 다시 말해 음악 구문론적 특징에 대한 이해와 내면화의 정도에 달려 있다고 보았다.<sup>22)23)24)</sup> 또한, 음악을 생각하는 동시에 즉흥연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소위 음악의 외적인 요소라고 간주되는 음악적 구조 안에서 음악 내적요소들을 능숙하게 다룰 수 있을 때 비로소 조직화된 음악 즉흥연주가 가능해진다고 주장한다. 이는 즉흥연주를 생성하는데 내적인 기능이 외적인 기능보다 더 요구어진다는 것을 입증한 것으로, 이를 통해 연주자 안에 내재되어 있는 음악적 지식과 기술이 많을수록 즉흥연주를 잘 할 수 있음을 다시 한 번 확인하게 된다.

## 2) 피아노 학습에서 즉흥연주의 교육적 의의

달크로즈(Dalcroze)<sup>25)</sup>는 즉흥연주를 하는 사람에 대해 “음악에 대해서 훨씬 더 많이 듣고, 전달하고, 연주하고 이해할 수 있다. 또한 자신을 표현하는 것이 가능한 사람이 다른 사람들의 감정을 표현하는데 성공할 수 있다.”

---

Approach,” *Creativity in Performance*, edited by R. Keith Sawyer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97), 43-66.

22) Christopher D. Azzara, “Audiation-Based Improvisation Techniques and Elementary Instrumental Students' Music Achievement,” *Journal of Research in Music Education* 41/4 (1993), 328-342.

23) Noam Chomsky, *Remarks on Nominalization* (Linguistics Club: Indiana University, 1968), 184-185.

24) P. N. Johnson-Laird and R. M. J. Byrne, *Essays in Cognitive Psychology* (Hillsdale: Deduction, 1991), 215.

25) Emile Jaques-Dalcroze, *Rhythm, Music and Education* (New York: GP Putnam's Sons, 1921), 79-92.

고 말하여 즉흥연주의 유용성을 제안하였다. 또한 즉흥연주는 학습자 스스로 새로운 것을 만들어 표현하는 행위로서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참여의식을 바탕으로 음악학습의 몰입을 이끌어 낸다는 점에서 높게 평가된다.<sup>26)</sup> 이연경<sup>27)</sup>은 피아노 학습에서의 즉흥연주 활동이 그 자체로 창조적 건반 연주 기술의 향상에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다른 영역의 피아노 기능 발달에도 도움을 준다고 언급하였다. 예를 들어 즉흥연주는 일반적으로 특정한 화음진행이나 음악적 패턴의 반복과 변형으로 이루어지는데 이러한 학습은 음악의 구조를 보다 쉽게 파악하여 독보능력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한다. 왜냐하면 독보를 잘 하기 위해서는 악보에 적힌 음들을 낱개로 읽기보다는 덩어리 또는 패턴으로 읽어야 구조를 파악하기 쉽기 때문이다. 게다가 시각적인 접근이 아닌 청각적인 접근으로 학습하기 때문에 중급수준에서는 음악을 주의 깊게 듣는 훈련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악보읽기에 서툰 초급 학생들도 창의적으로 음악 만들기에 참여할 수 있고 이를 통하여 음악적 성취감과 학습 동기를 진작시킬 수 있다. 상급수준의 학습자의 경우, 무대에서 연주 할 때 실수가 생겨도 음악을 즉흥적으로 만들어 실수를 덮고 다음으로 진행함으로써 연주의 자신감이 생겨 불안함을 완화시킬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 3) 즉흥연주 지도를 위한 일반적인 교수법

즉흥연주 특징에 대한 문헌연구를 통해 결국 초급 학습자라 하더라도 무의식으로 발현될 수 있는 최소한의 음악적 지식이 내재되어 있으면 외적인 음악 형태를 입혀 즉흥연주가 가능하다는 논리를 밝혀내었다. 즉, 즉흥연주의 학습주체가 대학의 작곡 전공자나 전문 음악가에게만 국한되지 않

26) 정재은, “달크로즈 교수법에서의 즉흥연주의 의미,” 177-199.

27) 이연경, “대학 기초 피아노 과정에 창작즉흥연주 지도를 위한 학습유형에 대한 연구,” 98.

고, 초급학습자부터 진행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초급학습자를 대상으로 즉흥연주 학습을 진행하려할 때 학습자 안에 내재되어 있는 음악적 지식이나 기술이 많지 않기 때문에 교사는 신중하게 학습 자료와 교수방법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기존연구들에서 제시하는 즉흥연주 지도의 일반적인 방법은 ‘계획적인 훈련’이었다.<sup>28)29)30)31)</sup> 계획적인 훈련의 주된 목적 중 하나는 내면화된 음악적 배경지식의 집중적인 개발을 터득해 즉흥연주를 하기 위한 전문 기술을 만들어 내는 것이다. 그밖에 즉흥연주 능력을 개발하기 위하여 교사의 직접적인 피드백이 주어지는 학습 환경, 전문 즉흥연주자들의 공연 감상, 음악이론 분석, 그리고 동료학생 그룹 앙상블 연주연습을 통한 방법 등이 효과적이라고 제안된다.

학습대상이 미취학아동이나 초등학생 같은 어린 초급 학습자일 경우에는 ‘계획적인 훈련’에 있어 학습 환경 구성과 교수법 선정에 더욱 신중해야 할 것이다. 선행연구에 의하면 교사의 권위적인 간섭을 가능한 줄이고 그룹 수업 환경에서 어린 학생들 간의 협력적인 분위기를 조성할 경우, 즉흥연주가 훨씬 효율적인 학습경험이 될 수 있다고 말한다. 다시 말해 교사와 학생 간 1:1 피아노지도 환경보다 그룹피아노 세팅에서 학습할 경우 즉흥

---

28) Kenny and Gellrich, “Improvisation,” 126-127.

29) Robert W. Weisberg, “12 Creativity and Knowledge: A Challenge to Theories,” *Handbook of Creativity*, edited by Robert J. Sternberg (Cambridge;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9), 226.

30) Jeff Pressing, “Psychological Constraints on Improvisational Expertise and Communication,” *In the Course of Performance: Studies in the World of Musical Improvisation*, edited by B. Nettl and M. Russell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98), 47-67.

31) Andreas C. Lehmann and K. Anders Ericsson, “Research on Expert Performance and Deliberate Practice: Implications for the Education of Amateur Musicians and Music Students,” *Psychomusicology: A Journal of Research in Music Cognition* 16/1-2 (1997), 40.

연주의 본질적인 학습 동기의 의미를 찾을 수 있다는 것이다.<sup>32)33)</sup> 초급 학습자를 위한 ‘계획적인 훈련’에 있어서도 아직 음악적 배경 지식이 충분히 쌓이지 못한 학생이므로 ‘기억과 분석적인 능력’을 과도하게 강조하며 연주를 강요하는 것보다 그들의 주어진 제한된 능력에 더 집중함으로써 ‘창조적이고 실용적인 능력’을 개발하는 교수법이 바람직하다고 말한다.<sup>34)</sup>

### 3. 본론

#### 1) 초급 피아노 교재의 구성 및 개요

##### (1) 『피아노를 위한 음악』(Music for Piano)

『피아노를 위한 음악』은 기존의 피아노 교재들이 다장조부터 시작하여 5도권으로 확장하되 제한된 조성만을 학습하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12개의 조성을 초급부터 고르게 독보학습시킨다는 고전적인 다조성 접근법으로 기획된 교재이다. 시기적으로 살펴보면 본 연구대상인 3종의 피아노 교재 중 가장 먼저 출판되었으며 『피아노를 위한 음악』<sup>35)</sup> 시리즈의 창작학습 교재인 『창의적인 음악』(Creative Music)은 건반활동을 통한 창의적인 건반

32) Jacqueline Baker-Sennett and Eugene Matusov, “School Performance: Improvisational Processes in Development and Education,” *Creativity in Performance* (1997), 197-212.

33) C. Smith, “A Sense of the Possible: Miles Davis and the Semiotics of Improvised performance,” *In the Course of Performance: Studies in the World of Musical Improvisation*, edited by B. Nettl and M. Russell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98), 261-289.

34) Robert J. Sternberg, ed., *Handbook of intelligence*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0), 234.

35) Robert Pace, *Music for Piano* (Milwaukee: Lee Roberts, 1962), 5-45.

학습에 있어서 20세기 피아노 교육 역사상 가장 큰 영향을 끼친 교재<sup>36)</sup>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 책의 저자인 페이스(Robert Pace)는 피아노 교육을 통하여 포괄적인 음악성 개발을 도모하는 것을 교육 철학으로 삼아, 레퍼토리 습득 이외에도 독보, 이론, 테크닉, 건반화성, 조옮김, 반주, 즉흥연주 등 다양한 건반활동을 학습내용에 포함시켰다. 따라서 출판 당시는 물론 반세기가 지난 현재까지 사전 지식 없이 이 교재를 지도하기 어렵다는 평을 받기도 한다. 페이스의 피아노 교재는 총 4단계로 구성되어 있고 각 단계는 레슨교재(Music for Piano, 1961, 1979)와 이론 교재(Theory Paper, 1970, 1979), 테크닉 교재(Finger Builder, 1979), 창의적인 음악 교재(Creative Music, 1979)의 병행교재로 구성되어 있다.

[표 3] 『피아노를 위한 음악』 교재 구성

레벨	구성
Book 1	Music for Piano1, Finger Builder1, Theory Paper1, Creative Music1
Book 2	Music for Piano2, Finger Builder2, Theory Paper3, Creative Music2
Book 3	Music for Piano3, Finger Builder3, Theory Paper3, Creative Music3
Book 4	Music for Piano4, Finger Builder4, Theory Paper4, Creative Music4

피아노 교육을 통한 음악적 창의성 개발의 가능성을 구체화 시켰다는 점에서 로버트 페이스는 20세기 피아노 교육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sup>37)38)</sup> 그는 음악의 개념 학습을 지도하기 위한 방법 중 하나로 즉흥연주를

36) Marianne Uszler, ed., *The Well-Tempered Keyboard Teacher*, 2nd ed. (Boston: Schirmer/Thomson Learning, 2000), 39.

37) Yawen Eunice Chyu, "Teaching Improvisation to Piano Students of Elementary to Intermediate Levels," Ph.D. Dissertation (The Ohio State University, 2004), 1-20.

38) Jan Jones Forester, "Robert Pace: His Life and Contributions to Piano Pedagogy and Music Education," DMA Dissertation (University of Miami, 1997), 24-40.

활용하는 교수법을 개발하였다. 페이스가 그의 교재 『창의적인 음악』에서 사용한 학습유형은 ‘창의적인 독보’(Creative Reading), ‘질문과 대답’(Question and Answer), ‘화음을 바탕으로 한 즉흥연주’(Improvising Based on Chords) 등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 이 중 창의적인 독보는 패턴읽기를 통한 초견학습에 해당하여 실제 창작활동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나 이 패턴 읽기를 기본으로 하여 ‘질문과 대답’, ‘화음을 바탕으로 하는 즉흥연주’로 이어지게 함으로써 음악적 창작활동을 통해 음악 개념을 강화하고 궁극적으로 포괄적인 음악성을 개발하는데 도움을 준다. 그는 즉흥연주 학습을 위한 음계 사용에 있어서도 5음음계, 온음음계, 12음계, 선법, 그리고 재즈 음악에서 사용하는 블루스 음계에 이르기까지 장·단음계를 뛰어넘어 다양한 스타일과 색깔의 선율을 사용하게 함으로써 창작을 통한 음악적 어법을 확장시키는데도 크게 기여하였다.

## (2) 『뮤직트리』(The Music Tree)

프란시스 클락(Frances Clark)과 루이제 고쓰(Louise Goss)에 의해 지난 1973년에 초판 된 『뮤직트리』<sup>39)</sup> 초급피아노 교재 시리즈는 이후 1993, 2000년에 재판이 이루어질 만큼 꾸준히 사용되고 있다. 예비단계를 포함하여 총 6단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예비단계, Part 1, 2A, 2B는 레슨교재와 기타 활동을 위한 병행교재(Activities)로 이루어졌으며, Part 3 & 4는 레슨교재 이외에 활동교재(Activities), 테크닉(Technic) 및 레퍼토리 교재로 세부 병행교재가 추가되어진다.

이 교재는 음정을 점차적으로 확장해 감에 따라 학생들의 독보능력을 개발시키려는 고전적인 음정접근법으로 커리큘럼이 설계되어 있다. 피아노 초급 학생들에게 포괄적인 음악성을 개발하는 것이 교육 이념인 만큼

39) Frances Clark and Louise Goss, *The Music Tree* (Secaucus: Summy-Birchard, 1973)

각 단원마다 새로운 개념, 심화자료, 테크닉 연습, 그리고 작곡 및 창작 활동이 포함되어 있다. 세부적으로는 음악적인 창의성 개발을 위하여 주어진 음악동기를 변형, 조옮김, 창작, 작곡하도록 독려하고 있고, 테크닉 개발을 위해서는 모음화음, 양손 협응 개발 활동이 다루어지고 있다.

[표 4] 『뮤직트리』 교재 구성

레벨	구성
Primer	Lesson, Activities
Part 1	Lesson, Activities
Part 2	Lesson 2A, Activities 2A Lesson 2B, Activities 2B
Part 3	Lesson 3, Activities 3, Keyboard Technic, Keyboard Literature, Students' Choice Solo
Part 4	Lesson 4, Activities 4, Keyboard Technic, Keyboard Literature, Students' Choice Solo

(3) 『셀리브레이트 피아노!』(Celebrate Piano!)

『셀리브레이트 피아노!』<sup>40)</sup>는 캐나다의 로얄 콘서바토리에서 음악교육을 통해 인간의 잠재력을 개발시키려는 것을 목적으로 지난 130여 년 동안 운영해온 로얄 콘서바토리 급수제도 (Royal Conservatory of Music Examination, 이하 RCM)에서 제공하는 교육자료 『셀리브레이트 시리즈!』(Celebration Series!)의 예비단계 피아노 교재이다. 『셀리브레이트 피아노!』 교재는 총 6단계에서(1A, 1B, 2A, 2B, 3, 4)에서 레슨교재와 레퍼토리 병행 교재를 출판하고 있다(표 5). 캐시 알버그(Cathy Albergo), J. 미치 콜라(J.

40) Cathy Albergo, J. Mitzi Kolar and Mark Mrozinski, *Celebrate Piano! Lesson and Musicianship* (Toronto: Frederick Harris Music Company, 2003), 3-45.

Mitzi Kolar), 마크 메로진스키(Mark Mrozinski), 윌리엄 김버(William Kimber)에 의해 발간되었으며 다조성 접근법에 기초하여 포괄적음악성 개발을 위해 다양한 음악활동을 다루고 있는 점은 페이스의 『피아노를 위한 음악』 메소드 시리즈와 유사하다. 『셀리브레이트 피아노!』 기초 피아노 메소드 시리즈는 다양한 스타일과 장르의 레퍼토리뿐만 아니라, 테크닉 훈련, 패턴읽기를 통한 독보개발, 이론학습, 듣고 따라 치기를 통한 청각기술 개발 그리고 음악적 질문과 응답 활동을 통한 음악창작능력 개발을 위한 활동들을 제공하고 있다.

[표 5] 『셀리브레이트 피아노!』 교재구성

레벨	구성
레벨1	Celebrate piano! Lesson and Musicianship 1A & 1B Celebrate Piano! CD Accompaniment 1A & 1B Celebrate Piano! Solo 1
레벨2	Celebrate Piano! Lesson and Musicianship 2A & 2B Celebrate Piano! CD Accompaniment 2A & 2B Celebrate Piano! Solo 2
레벨3	Celebrate Piano! Lesson and Musicianship 3 Celebrate Piano! CD Accompaniment 3 Celebrate Piano! Solo 3
레벨4	Celebrate Piano ! Lesson and Musicianship 4 Celebrate Piano! CD Accompaniment 4 Celebrate Piano! Solo 4

## 2) 연구대상 교재에서 다루고 있는 창작즉흥 연주활동 유형 분석

[표 2]에서 제시한 이연경의 창작즉흥연주 학습유형 분류표를 바탕으로 초급 피아노 교재 3종 총 16권의 창작즉흥 연주활동을 분석한 결과, 학습대

상자가 다른 만큼 즉흥연주 지도를 위한 학습유형 선택에도 다소 차이가 있음을 발견하였다. 우선 초급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기초 피아노 교재에서는 (표 2) 즉흥연주 학습유형 4가지 대분류 중 III 그룹 ‘교재악곡을 활용하는 즉흥연주’와 IV 그룹 ‘비전통적 음악기법에 의한 창작 즉흥연주’ 유형 중 IV-5. ‘재즈기법에 의한 즉흥연주 활동’을 제외하면 약 40여 년 전에 출판된 페이스의 『창의적인 음악』에서만 드물게 발견되고 『뮤직트리』와 『셀리브레이트 피아노』 시리즈에서는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 페이스의 피아노 교재가 출판 당시뿐만 아니라 반세기가 지난 현재까지 이에 대한 사전 지식 없이 이 교재를 지도하기 어렵다는 평가받는 것을 고려하면,<sup>41)</sup> 아마도 대분류 III과 IV 그룹에 속한 활동들이 상대적으로 음악적 학습경험이 많거나 음악적 이해도가 높은 학생들에 적합한 유형이라고 추측할 수 있다.

따라서 피아노를 이제 막 시작한 초급 학습자에게 적용할 수 있는 즉흥연주 학습자료 및 방법을 개발하기 위해 (표 2)에 제시된 대분류 중 I 그룹 ‘선율을 중심으로 하는 창작즉흥연주 학습유형’과 II 그룹 ‘적용개념에 의한 창작즉흥연주 학습유형’에 포함된 12개의 세부 활동 중 실제 활용도가 높은 활동들을 선별하여 학습유형을 재구성하면 효과적이겠다. 하지만 실제 본 연구의 대상인 초급 피아노 메소드 3종 16권에 수록된 즉흥연주 활동들을 (표 2) 창작즉흥연주 학습유형 분류표에서 일치하는 세부 활동을 한 가지씩만 고르는 것은 상당히 어려웠다.

그 원인을 파악해 보면 첫째, 음악적 어휘가 부족한 초급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즉흥연주활동을 설계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흥미와 학습의 효과를 고려하여 두세 가지 이상 음악적 요소를 동시에 적용한 것으로 파악된다. 대신 즉흥연주에 활용할 음악적 요소를 구체적으로 지정하여 제시함으로써 난이도와 학습에 대한 부담감을 줄이는데 신경 쓴 것으로 보인다.

41) Marianne Uszler, *The Well-Tempered Keyboard Teacher*, 39.

다. 둘째, 이 분류표는 네 가지 대분류 안에 세부 활동이 23가지에 이를 만큼 창작즉흥연주 활동유형을 상세히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대분류 I 그룹 안에 음악요소에 의한 분류와 즉흥연주 학습제시 방법에 의한 분류가 혼재되어 있어서 음악요소에 의한 즉흥연주 활동 분류만을 제시하고 있는 대분류 II 그룹과 상당히 이질적으로 느껴졌다. 세부적으로 분석하면 대분류 I 그룹과 II 그룹에 속하는 12개 세부 활동 중 음악적 요소에 따른 분류가 아닌 즉흥연주 학습 제시방법에 의한 분류는 ‘문답형 방식에 의한 즉흥연주(I-3)’, ‘지정한 음악적 요소에 따른 즉흥연주(I-4)’, 그리고 ‘동기 전개 기법에 의한 즉흥연주(I-6)’이다.

‘지정한 음악적 요소에 따른 즉흥연주’란 피아노 학습을 갓 시작하여 음악적으로 쌓인 지식이 얇은 학생들에게 음악적 요소의 범위나 내용(예를 들면, 건반에서의 손의 위치, 리듬패턴, 사용하는 음표·화음진행 등)을 세부적으로 지정해 줌으로써 그들도 즉흥연주 학습이 가능하도록 이끌어 주는 교수방법이다. 초급 피아노 교재에서 다루는 거의 모든 즉흥연주 활동은 교재에서 지정하는 두세 가지 음악요소가 연계되어 제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수학습방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예를 들어 (악보 1)은 피아노를 활용하여 천둥소리를 즉흥연주 할 수 있도록 음악동기와 연주주법을 구체적으로 지정한 예시이다. 천둥(Thunder) 동기는 댐퍼페달을 누른 채로 반음을 연주하도록 지정하고 있으며, 빗방울(Rain) 동기는 온음으로 스타카토를 연주하도록 지정하였고, 마지막으로 번개(Lighting) 동기는 손톱과 손목 스냅을 이용하여 건반을 연주하도록 글리산도 주법으로 지정하고 있다. ‘문답형 방식에 의한 즉흥연주’도 일종의 지정한 음악적 요소에 따른 즉흥연주 활동으로 볼 수 있다. 교사가 음악 질문으로 제시한 음악동기에 내재되어 있는 음악요소가 다름 아닌 지정된 음악요소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창작하여야 할 분량이 교사와 학생에게 동등하게 주어지고, 실제 지도 시 교사가 지속적으로 음악적 질문을 변형하여 제시할 경우 학생에게 주어지

는 음악적 자극과 피드백은 더욱 크게 부여 될 수 있다. (악보 2)에서 제시된 음악적 질문은 사장조 다섯음패턴으로 이루어진 선율에 2/4박자 그리고 8분음표와 4분음표로 이루어진 리듬패턴이 일종의 지정된 음악요소에 해당된다. 학생은 교사의 음악질문을 듣고 이와 유사하거나 대조되는 음악적 대답을 창작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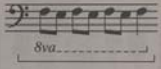
[악보 1] 『뮤직트리』 Part 2A, 23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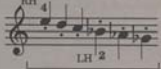
*Improvisi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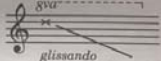
### Thunderstorm

Make a piece about a thunderstorm that us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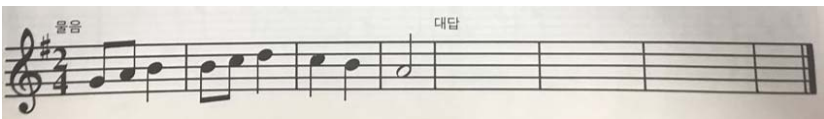
- Half steps low on the piano with pedal to sound like thunder
- Whole steps in the middle of the piano to sound like rain falling
- Ask your teacher to show you how to play a glissando for the lightning!

**Thunder** 

**Rain** 

**Lightning** 

[악보 2] 『창의적인 음악』 Book 1, 23쪽



마지막으로 ‘동기 전개 기법에 의한 즉흥연주’는 최소 음악적 단위가 되는 동기적 선율 소재를 다양한 동기 전개 기법을 활용하여 4마디 혹은 8마디 선율로 발전시키는 방법이다. 맥(Mack)은 동기전개기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다양한 방법을 제안한다.

주어진 동기 음형의 리듬 변화시키기, 동일 음고에서 시작하거나 음정의 크기를 변화시키기, 음들의 방향을 바꾸기, 단음들을 반복시키기, 장식음 첨가, 일부 음을 삭제시켜 단순화시키기, 동기의 일부 음악 반복하기, 음가 축소, 리듬 확장, 악센트 위치 이동시켜 박자 변화시키기, 동기의 일부를 반복시킨 후 그 음형을 새로이 전개시키기, 음 사이를 순차진행의 음계 음이나 반음계 음으로 채우기, 다른 조성에서 동기 전개, 여러 유형의 음계에서 음형 전개<sup>42)</sup>

‘동기 전개 기법에 의한 즉흥연주’는 워낙 활용방법이 다양하다보니 어린 초급 학생이 내면화해야 할 음악적 요소 분량이 늘어나고 난이도가 높아질 수 있는 관계로, 본 연구대상으로 삼은 3종 16권의 교재에서 이 방법이 적용된 사례는 나타나지 않았다.

(표 2)에서 제시한 분류표를 바탕으로 3종 16권의 초급 피아노 교재에 적용된 즉흥연주 세부유형을 분석할 때 어려웠던 또 다른 문제점은 대분류 I 그룹과 II 그룹에 속하는 12개 세부 활동 중, 위에서 동일한 음악요소를 다루는 즉흥연주 활동이 일부 중복되어 제시된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5 음음계에 기초한 선율 즉흥연주(I-2)’는 ‘음계요소에 의한 창작즉흥연주(II-4)’의 하위요소로 간주될 수 있고, ‘제시된 화음 기호에 의한 선율 즉흥연주(I-5)’와 ‘화음요소에 의한 창작즉흥연주(II-3)’도 같은 음악요소인 화음을 바탕으로 하는 즉흥연주이다. 마찬가지로 제시된 ‘리듬 패턴에 의한 선율 즉흥연주(I-1)’도 ‘리듬요소에 의한 창작즉흥연주(II-1)’와 동일한 음악요소를 바탕으로 하는 즉흥연주이다.

결국 (표 2)에서 제시하는 대분류 I 그룹에서 즉흥연주 학습 제시방법에 해당하는 세부 활동 I-3, I-4, I-6을 즉흥연주를 위한 교수방법으로 따로 떼

42) G. Mack, *Adventures in Improvisation at the Keyboard* (Princeton: Birch Tree Group, 1970), 76-80. 이연경, “대학 기초 피아노 과정에 창작즉흥연주 지도를 위한 학습유형에 대한 연구,” 106에서 재인용.

어두고 나머지 세 가지 세부 활동 I-1, I-2, I-5들은 대분류 II 그룹에서 동일한 음악요소를 다루는 활동과 합침으로써 초급학습자를 위한 피아노 교재에 적용할 수 있는 즉흥연주 활동 유형을 재구성해 볼 수 있다(표 6) 참고).

[표 6] 초급 학습자를 위한 피아노 교재에 적용된 즉흥연주 학습유형 분류표

즉흥연주 학습 제시방법	적용하는 음악요소에 따른 즉흥연주 학습유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답형 방식에 의한 즉흥연주</li> <li>• 지정한 음악적 요소에 따른 즉흥연주</li> </ul>	• 리듬요소에 의한 창작즉흥연주
	• 음정요소에 의한 창작즉흥연주
	• 화음요소에 의한 창작즉흥연주
	• 음계요소에 의한 창작즉흥연주
	• 형식요소에 의한 창작즉흥연주
	• 성부조직요소에 의한 창작즉흥연주

### 3) 초급 피아노 학습자를 위한 즉흥연주 교육 자료 예시 개발

이연경<sup>43)</sup>이 대학의 기초 클래스피아노 교재 중에서 다루지고 있는 다양한 즉흥연주 유형과 기법을 23가지로 세분화하였다면,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일반적으로 초급 학습자라 불리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피아노 교재에서 주로 다루지는 즉흥연주 활동을 6가지 유형과 2가지 기법으로 재구성하였다. (표 6)에서 제시하는 음악요소에 따른 즉흥연주 학습유형을 ‘지정한 음악적 요소에 따른 즉흥연주 기법’이나 ‘문답형 방식에 의한 즉흥연주 기법’을 활용하여 우리나라 초급 피아노 학습자에게 적용할 수 있는 즉흥연주 활동을 위한 교육 자료 예시를 개발하고자 한다. 앞서

43) 이연경, “대학 기초 피아노 과정에 창작즉흥연주 지도를 위한 학습유형에 대한 연구,” 95-136.

연구목적에서 우리나라 음악적 소재를 바탕으로 초급 피아노 학습자를 위한 즉흥연주 교육 자료 예시를 개발한다고 밝혔다. 음악교육용 자료에 활용되는 우리나라 음악적 소재라 함은 일반적으로 전래동요, 민요, 동요, 가곡, 대중가요 등을 일컫는데 본 연구에서는 최근 국내외에서 많은 관심과 흥미를 갖는 케이팝(K-Pop) 소재를 활용하는 것으로 제한하고자 한다.

### (1) 리듬요소에 의한 창작즉흥연주

이 연주기법은 지정된 여러 개의 리듬패턴을 재구성하여 새로운 리듬패턴의 진행을 창작하거나 또는 지정된 리듬패턴을 반복적으로 활용하여 선율을 창작하는 활동이다. 피아노 학습을 갓 시작한 초급학생들을 대상으로 즉흥연주를 시작하고자 할 때, 선율 요소보다 리듬 요소를 활용한 활동을 먼저 제공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특히 연주하는 음을 한두 개의 음으로 지정해 주는 것은 학습자가 운지법이나 흑이라도 파생될 불협화음에 신경 쓰지 않고 리듬에 집중하여 연주 할 수 있는 학습 환경을 제공하는 방법이기도 하다.

(악보 3)과 (악보 4)는 케이팝 아이돌 그룹 엑소의 노래 <댄싱 퀸>의 오스티나토 선율을 교사반주로 하여 학생은 지정된 미(E)음에서 4분음표, 2분음표로 구성된 리듬패턴 4개를 선택적으로 재구성하여 새로운 리듬 패턴을 창작하는 활동이다. 교사가 반주하는 선율이 학생들에게 친숙한 선율이고 지정된 한 음만을 사용하여 리듬을 연주하다보니 마치 랩을 연주하는 것 같은 흥미를 이끌어 낼 수 있다. 이 즉흥연주 활동을 위하여 본 연구자는 리듬패턴과 사용할 음표를 지정하였으며 이 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학습자는 고정박을 느끼며 4분음표, 2분음표를 정확하게 셀 수 있는 능력이 내재되어 있어야 할 것이다.

(악보 3) 리듬 패턴



(악보 4) 지정된 한 음과 리듬 패턴을 활용하는 즉흥연주

활동예시: 교사 반주에 맞춰 위에서 제시한 리듬패턴 4개를 선택적으로 재구성하여 미(E)음에서 연주하며 새로운 리듬 패턴을 창작해 보세요.

**Dancing Queen** 엑소(Exo)

학생연주

교사반주

앞에서는 4개의 리듬패턴을 재구성하여 새로운 리듬패턴을 창작하였다면, (악보 5)는 사용할 한 가지 리듬패턴을 지정하고 사용할 음을 두 개로 지정하여 새로운 선율을 창작하는 활동이다. 이 즉흥연주 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학습자는 고정박을 느끼며 지정된 리듬 패턴에 5도 음정으로 이루어진 두 개의 음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 내재되어 있어야 할 것이다.

## (악보 5) 지정된 두 음과 리듬 패턴을 활용하는 즉흥연주

활동예시: 아래 지정된 리듬 패턴을 레(D), 라(A) 두 음을 사용하여 새로운 선율을 창작해 보세요.



## 레(D) 라(A) 두음 즉흥연주

학생연주

교사반주

## (2) 음계요소에 의한 창작즉흥연주

음계는 선율을 창작하는 소재로서 어떤 음계를 사용하여 창작하는지에 따라 악곡 스타일의 변화가 다양하게 펼쳐질 수 있다. 3종의 초급 피아노 교재 총 16권에 실린 즉흥연주 음계를 살펴보면 5음음계, 장·단음계, 반음계, 온음계, 12음렬, 교회선법, 블루스음계가 주를 이룬다. 5음음계는 반음 없이 동등한 기능과 중요성을 갖는 5개의 음으로 구성되어 어떠한 음을 연주하여도 불협화음 없이 잘 섞이는 특징이 있어 초급 학생들도 실수에 대한 부담감이 줄어 ‘틀렸다’라는 느낌 없이 연주하게 함으로써 즉흥연주

에 대한 자신감을 심어 줄 수 있는 음악적 소재이다. 이에 반해 장·단음계는 온음과 반음의 위계구조를 갖고 있어 화음에 대한 이해 없이 선율을 창작할 경우 불협화음이 생길 수가 있다. 이를 보완하고자 연구대상인 3종 총 16권의 교재에서는 학습 초기에 장·단음계도 한 옥타브 범위가 아닌 장음계 다섯손가락 패턴 혹은 단음계 다섯손가락 패턴으로 음역을 지정함으로써 어린 초급 학생들이 불협화음에 대한 부담감을 줄여서 연주할 수 있도록 교수법을 제공하고 있다.

본 연구자는 다양한 음계 중 선법에 의한 즉흥연주 교육자료 예시를 제공하고자 한다. 위에서도 잠시 언급하였으나 최근 세계적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 케이팝의 음악소재 중에 선법을 사용하는 작품들이 더러 발견된다. 구체적인 예로 아래에 제시하는 케이팝 아이돌 그룹 엑소의 <으르렁>이란 작품은 도리안 선법(Dorian Mode)으로 작곡되었다. (악보 7)에 제시된 B-도리안 선법(B-Dorian Mode) 구성음 중 일부만을 발췌하여 지정해주고((악보 6)), 교사가 원곡의 일부를 반주하면 이에 맞춰 학생은 리듬과 선율을 새롭게 창작하는 학습 활동을 할 수 있다. 이때 학습자의 능력에 따라 선법의 구성음 중 2개 혹은 3개의 음을 발췌할 수도 있고, 구성음을 모두 사용할 수도 있다.

[악보 6] 지정된 4개의 음(B, D, E, F#)을 활용한 즉흥연주



활동예시: 주어진 패턴을 활용하여 교사의 반주에 맞춰 4개의 음(B, D, E, F#)으로 새로운 선율을 즉흥연주로 창작해 보세요

으르렁

엑소(EXO)

학생연주

교사반주

학생연주

교사반주

(악보 7) B-Dorian Mod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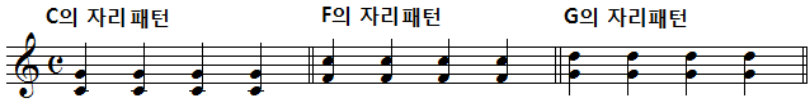
B Dorian Mode

(3) 음정요소에 의한 창작즉흥연주

단원마다 특정 음정에 대한 개념을 학습한 후 이를 강화시키기 위해 제공하는 학습활동이다. 특히 음정접근법에 의한 독보지도를 하는 초급 피아노 교재에서 자주 발견된다. 보통 구체적으로 지정된 화성음정이나 선율음정 패턴을 활용하여 간단한 악구를 창작하는 활동이다. (악보 8)과 (악보

9)는 세 개의 자리에 주어진 화성적 5도 음정을 악보에 적힌 음의 위치에 맞게 적용하여 교사반주에 맞춰 연주하는 활동이다. 이 활동을 위하여 학습자는 내면적으로 음의 자리에 대한 개념과 5도 음정을 연주하기 위한 두 음간의 거리를 기억하고 있어야 자리를 이동하여도 두 음간의 거리를 놓치지 않고 연주할 수 있다.

[악보 8] 5도 음정 패턴



[악보 9] 5도 음정 즉흥연주

5도음정 즉흥연주

학생연주

교사반주

(4) 화음요소에 의한 창작즉흥연주

3종의 초급 피아노 교재에서 모두 사용하는 즉흥연주 유형으로 세부적으로 각 마디에 표시된 화음기호를 보고 선율을 창작하거나, 주어진 선율

에 적합한 화음 반주를 창작하는 활동이다. 어린이를 위한 초급 피아노 교재인 만큼 화음 표기 방법은 로마 숫자(예, I-V)로 이루어졌으며, 이는 이연경의 선행연구에서 분석한 대학생용 일부 교재가 알파벳 화음기호(예, C, G7)등으로 표기된 것과는 차이를 보인다. (악보 10)은 화음기호를 보고 선율을 창작하는 활동이고 이 학습의 제시 방법을 살펴보면, 질문-대답 유형으로 교사가 시연하는 음악적 질문에 유사하거나 대조되는 음악적 대답을 학생이 즉흥연주하게 하는 것으로 사용할 화음이 지정되어 있어 학생이 어떤 음악재료로 어떻게 즉흥 연주해야 하는지를 비교적 상세하게 제시하고 있다.

[악보 10] 주요3화음을 활용한 즉흥연주

The image shows two musical staves for piano accompaniment. The first staff contains four measures of music. The first measure has a treble clef and a bass clef, with a chord symbol 'I' below the bass clef. The second measure has a chord symbol 'IV' below the bass clef. The third measure has a chord symbol 'I' below the bass clef. The fourth measure has a chord symbol 'V' below the bass clef. The second staff also contains four measures of music. The first measure has a chord symbol 'I' below the bass clef. The second measure has a chord symbol 'IV' below the bass clef. The third measure has a chord symbol 'V' below the bass clef. The fourth measure has a chord symbol 'I' below the bass clef. The notes in the treble clef are mostly eighth and quarter notes, while the bass clef notes are mostly quarter notes.

(5) 형식요소에 의한 창작즉흥연주

형식요소에 의한 창작즉흥연주 기법에 대하여 이연경<sup>44)</sup>은 ‘동기 전개하

44) 이연경, “대학 기초 피아노 과정에 창작즉흥연주 지도를 위한 학습유형에 대한 연구,” 95-136.

여 8마디 프레이즈 완성하기’, ‘프레이즈 유형에 따른 즉흥연주’, ‘특정음악 형식으로 음악 창작하기(한도막 형식, 두도막 형식, ABA 3도막 형식, 론도 형식, 주제와 변주곡 형식, 카논 형식)’을 제시하였다. 이 활동들 모두 연구 대상으로 삼은 3종의 피아노교재의 즉흥연주 학습활동에 활용된다. 대신 성인 학습자와는 달리 어린 학습자를 대상으로 삼기에, 론도 형식, 카논 형식과 같이 악곡의 길이가 길어져 고도의 집중력과 난이도를 요구하는 활동은 드물게 사용된다.

페이스는 그의 교재 『창의적인 음악』에서 ‘질문과 대답’, ‘회음을 바탕으로 한 즉흥연주’와 같은 창작즉흥연주 활동 이외에 ‘창의적인 독보’를 주요 활동으로 포함시킬 만큼 패턴읽기를 통한 조건학습을 중요시 여겼다. 패턴 읽기를 통한 독보 능력 향상과 즉흥연주 능력 향상 간에 무엇이 우선시 되어야 하는지는 밝혀지지 않았으나 두 활동이 상호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자들이 동의한다.<sup>45)46)47)48)</sup> 그만큼 음악적인 확장과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작은 음악단위인 패턴을 인지하고 이를 바탕으로 형식을 구성하는 방법을 터득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아래 (악보 11)을 살펴보면 지정된 음악적 동기 A(2마디)와 B(2마디)를 활용하여 16마디 두 도막 형식으로 확장하여 창작하는 활동이 제시되어 있다. 즉흥연주에 대한 문헌적 분석에 의하면 이 활동은 G장조 으뜸화음과

45) P. N. Johnson-Laird, “Reasoning, Imagining and Creating,” *Bulletin of the Council for Research in Music Education* 95 (1988), 71-87.

46) Patricia Ann Grutzmacher, “The Effect of Tonal Pattern Training on the Aural Perception, Reading Recognition, and Melodic Sight-Reading Achievement of First-Year Instrumental Music Students,” *Journal of Research in Music Education* 35/3 (1987), 171-181.

47) Andrew J. Waters, Geoffrey Underwood and John M. Findlay, “Studying Expertise in Music Reading: Use of a Pattern-Matching Paradigm,” *Perception & psychophysics* 59/4 (1997), 477-488.

48) S. Rabinof, “Improvisation,” *Teaching piano*, Vol. 1, edited by Denes Agay (New York: York Town Press, 1981), 227-243.

C장조 으뜸화음에 대한 내적 개념을 ABAB' ABA'B'라는 외적 형식에 적용하여 즉흥연주 하는 것이다. 이는 각 조의 으뜸화음에 대한 개념이 학습자 안에 내재되어 있어야 가능한 활동이다. 주어진 패턴 A와 B를 그대로 연주하는 것 이외에 A'B'로 변형하여 악곡을 16마디까지 확장하여 연주해야 하기 때문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A동기는 G장조 주요3화음을 양손 펼친화음으로 연주하고 B동기는 C장조 왼손 펼친화음과 오른손 3도 화성적 음정을 연주하도록 지정되어 있다. A동기를 변형한 A'는 G장조 주요3화음 펼친화음 대신 모음화음일 수 있고, B동기의 변형인 B'는 C장조 왼손 모음화음과 오른손 펼친화음일 수 있다. 이 모든 것은 학습자의 창의적인 선택에 달려 있다. 학습자는 이 활동을 수행하기 위해서 C장조와 G장조 주요3화음을 인지하고 펼친화음과 모음화음으로 자유롭게 구사할 수 있는 능력이 내재되어 있어야 할 것이다.

[악보 11] 음악적 동기를 활용하여 16마디 두 도막 형식으로 창작

활동예시: 주어진 음악적 패턴을 활용하여 A-B-A-B' A-B-A'-B'의 형식으로 즉흥 연주해보세요.

The image shows a musical score for two patterns, A and B, in 3/4 time. Pattern A is marked with a box labeled 'A' and consists of a bass line with notes G2, A2, B2 and a treble line with notes G4, A4, B4. Pattern B is marked with a box labeled 'B' and consists of a bass line with notes C3, G2, C3 and a treble line with notes C4, E4, G4. Red arcs connect the notes between the two patterns, indicating harmonic relationships.

#### 4.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최근 국내외에 널리 알려진 어린 초급 학습자를 위한 피아노 교재 중 창작즉흥연주 활동을 체계적으로 다루고 있는 교재의 즉흥연주 활동유형을 분석한 후, 우리나라의 음악적 소재를 활용한 창작즉흥연주 교재개발 및 지도안 설계를 희망하며 초급 피아노 학습자용 즉흥연주 교육 자료의 개발 및 예시를 목적으로 하였다. 약 20년 전에 국내에서 이루어진 이연경의 선행연구에서 제시하는 즉흥연주 활동 총 23개 중 미취학아동이나 초등학생들을 위한 즉흥연주 활동에 적합한 학습유형을 음악요소와 지도방법에 따른 8가지 방법으로 재구성하였으며 이를 활용한 즉흥연주 교육 자료의 예시를 개발하였다.

즉흥연주에 대한 국내외 문헌조사와 여러 피아노교재 분석을 통하여 어린 초급 피아노 학습자용 창작즉흥연주 지도를 위한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창작즉흥연주 피아노 교육은 단지 악보를 읽고 피아노를 치는 단순한 학습활동이 아니라 음악이론, 독보, 테크닉 등 다양한 건반 연주 능력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야 가능한 학습이라는 사실이다. 따라서 이를 위해서는 포괄적인 음악성을 개발하려는 교육목적을 바탕으로 교재 구성이 이루어져야 하고 레퍼토리 학습이외에도 초견, 이론, 테크닉 학습 활동들이 병행되어야 한다. 둘째, 창작즉흥 연주활동을 계획할 때, 1:1 레슨의 경우 최소한 교사와 함께 진행하거나 또는 여러 명의 또래 그룹 어린이들이 함께 참여하는 그룹 지도 환경이 바람직하다. 부득이 개인레슨 지도 유형으로 진행할 경우, 교사는 학생이 자발적으로 음악 창작 학습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음악적 질문거리를 끊임없이 제시하되 결코 학습의 주체는 교사가 아닌 학생이어야 함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셋째, 즉흥연주는 연주기술이 뛰어난 음악전공자나 전문가에게만 해당되는 학습활동이 아니고 초급피아노 학습자부터 경험할 수 있는 유의미한 음악교육활동이다. 즉흥연주 그 자체로 음악적 창의성 개발에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독보, 귀훈련, 음악적

개념 학습의 강화, 음악적 성취감 향상 등 교육적으로 효과가 크다. 따라서 초급학습자를 대상으로 즉흥연주 학습을 진행하려할 때 학습자 안에 내재되어 있는 음악적 지식이나 기술 수준을 정확히 파악하고 즉흥연주를 위한 학습자료와 교수방법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연주를 잘한다는 것은 단지 기술적으로 깨끗하게 틀리지 않고 표현하는 것을 뛰어 넘어 작곡가의 의도를 제대로 파악하고 작품에 대한 이해를 숙련된 테크닉으로 소리에 담아내는 것임을 누구나 알고 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음악에서 이론학습이란 음악 감상을 통한 비평이나 종이책 위에 적힌 음악이론을 풀어나가는 학습활동을 상상한다. 이 점이 바로 실기교육에 있어 연주자들이 그전에 학습한 음악이론을 그들의 연주에 제대로 적용하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이다. 음악교육에 있어서 이론 및 개념 학습은 그들의 연주나 감상활동에 적용되어야 비로소 유의미해지고 이러한 학습은 기초 음악교육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피아노 교육에 있어서 많은 음악학원 교사들은 이론 및 개념 학습을 종이책과 같은 학습지를 통해 병행시키는데 익숙해져 왔다. 특히 우리나라 학원 운영 특성 상 동시간대에 여러 명의 학생을 지도하다보니 교사의 손이 미처 닿지 못하는 학생들에게 음악이론 학습교재를 학생 스스로 풀게 하는 것이 일종의 효율적인 교수법이자 학원 운영방법처럼 여겨져 왔다. 일부 학생들은 이러한 지필식 음악이론 학습을 통해 음악적 지식을 쌓아 도움을 받았을 수도 있지만, 반면에 일부 학생들은 소리를 통한 음악 만들기가 아닌 주입식 음악학습에 쉽게 흥미를 잃을 수도 있음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이 때 즉흥연주는 학습자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그동안 학습자 안에 내면화된 음악적 지식 및 개념을 끄집어내어 연주하게 함으로써 음악개념학습의 강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효율적인 건반학습활동이다. 이러한 가능성을 우리나라 교육 현장에서 실현할 수 있도록 우리나라 음악적 소재를 바탕으로 포괄적인 음악성 계발에 기여할 수 있는 창작즉흥연주 교재의 개발이 조만간 이루어지길 기대해본다.

## 참고문헌

- 이연경. “피아노 지도의 즉흥연주 교수방안에 관한 연구.” 『음악교육연구』 10 (1991), 31-78.
- \_\_\_\_\_. “대학 기초 피아노 과정에 창작즉흥연주 지도를 위한 학습유형에 대한 연구.” 『음악교육연구』 21 (2001), 95-136.
- 정재은. “달크로즈 교수법에서의 즉흥연주의 의미.” 『음악교육연구』 30 (2006), 177-199.
- 정진원. “음악적 창의성: 활동유형별 특성 및 사고과정을 통한 재조명.” 『예술교육연구』 8/3 (2010), 77-94.
- 최미영. “고든의 오디에이션 이론에 기초한 초등음악수업에서의 즉흥연주지도.” 『교사교육연구』 53/3 (2014), 430-446.
- Azzara, Christopher D.. “Audiation-Based Improvisation Techniques and Elementary Instrumental Students’ Music Achievement.” *Journal of Research in Music Education* 41/4 (1993), 328-342.
- \_\_\_\_\_. “An Aural Approach to Improvisation: Music educators can teach improvisation even if they have not had extensive exposure to it themselves. Here are some basic strategies.” *Music Educators Journal* 86/3 (1999), 21-25.
- Baker-Sennett, Jacqueline and Eugene Matusov. “School Performance: Improvisational Processes in Development and Education.” *Creativity in Performance*. Hertfordshire: Harvester-Wheatsheaf, (1997), 197-212.
- Dobbins, Bill. “Improvisation: An Essential Element of Musical Proficiency.” *Music Educators Journal* 66/5 (1980), 36-41.
- Brophy, Timothy S. “Developing Improvisation in General Music Classes.” *Music Educators Journal* 88/1 (2001), 34-53.
- Chomsky, Noam. *Remarks on Nominalization*. Linguistics Club: Indiana University, 1968.

- Chyu, Yawen Eunice. "Teaching Improvisation to Piano Students of Elementary to Intermediate Levels." Ph.D. Dissertation, The Ohio State University, 2004.
- Csikszentmihalyi, Mihaly and Grant Rich. "Musical Improvisation: A Systems Approach." *Creativity in Performance*. edited by R. Keith Sawyer.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97, 43-66.
- Forester, Jan Jones. "Robert Pace: His Life and Contributions to Piano Pedagogy and Music Education." DMA Dissertation, University of Miami, 1997.
- Grutzmacher, Patricia Ann. "The Effect of Tonal Pattern Training on the Aural Perception, Reading Recognition, and Melodic Sight-Reading Achievement of First-Year Instrumental Music Students." *Journal of Research in Music Education* 35/3 (1987), 171-181.
- Jaques-Dalcroze, Emile. *Rhythm, Music and Education*. New York: GP Putnam's Sons, 1921.
- Johnson-Laird, P. N. and R. M. J. Byrne. *Essays in Cognitive Psychology*. Hillsdale: Deduction, 1991.
- Johnson-Laird, P. N.. "Reasoning, Imagining and Creating." *Bulletin of the Council for Research in Music Education* 95 (1988), 71-87.
- Kenny, Barry J. and Martin Gellrich. "Improvisation." *The Science and Psychology in the Music Performance*, edited by R. Parncutt and G. E. McPherson.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2002, 117-134.
- Hickok, D. and J. A. Smith. *Creative Teaching of Music in the Elementary School*. Boston: Allyn & Bacon, 1974.
- Lehmann, Andreas C. and K. Anders Ericsson. "Research on Expert Performance and Deliberate Practice: Implications for the Education of Amateur Musicians and Music Students." *Psychomusicology: A Journal of Research in Music Cognition* 16/1-2 (1997), 40.
- Lloyd, Ruth and Norman Lloyd. *Creative Keyboard Musicianship: Fundamentals*

- of Music and keyboard Harmony through Improvisation*. New York: Dodd, Mead, 1975, 103-105.
- Nettl, Bruno. "Thoughts on Improvisation: A Comparative Approach." *Musical Quarterly* 60 (1974), 1-19.
- Pace, Robert. *Music for Piano*. Milwaukee: Lee Roberts, 1962.
- Pressing, Jeff. "Psychological Constraints on Improvisational Expertise and Communication." *In the Course of Performance: Studies in the World of Musical Improvisation*, edited by B. Nettl and M. Russell.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98, 47-67.
- Rabinof, S. "Improvisation." *Teaching piano*, Vol. 1, edited by Denes Agay. New York: York Town Press, 1981, 227-243.
- Sloboda, J. A.. *The Musical Mind: The Cognitive Psychology of Music*.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85.
- Smith, C.. "A Sense of the Possible: Miles Davis and the Semiotics of Improvised Performance." *In the Course of Performance: Studies in the World of Musical Improvisation*, edited by B. Nettl and M. Russell.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98, 261-289.
- Sternberg, Robert J. ed.. *Handbook of intelligence*.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0.
- Uszler, Marienn. ed.. *The Well-Tempered Keyboard Teacher*, 2nd ed. Boston: Schirmer/Thomson Learning, 2000, 39.
- Waters, Andrew J., Geoffrey Underwood and John M. Findlay. "Studying Expertise in Music Reading: Use of a Pattern-Matching Paradigm." *Perception & psychophysics* 59/4 (1997), 477-488.
- Weisberg, Robert W. "12 Creativity and Knowledge: A Challenge to Theories." *Handbook of creativity*, edited by Robert J. Sternberg. Cambridge;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9.
- "Top 99 Piano Method Series," <http://www.sheetmusicplus.com>, 검색일: 2018.10.15.

## Abstract

## Development of Creative Improvisation Training Materials for Beginner Piano Learners

Kwon, Sumi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type of improvisation technique in the piano method which is used in Korea and abroad for the young beginners. Based on the literature review, 6 types of music elements and 2 types of teaching methods suitable for improvisation activities for preschoolers or elementary school students were reconstructed. In addition, this study developed and presented the teaching materials for improvisational activities for the beginner piano students using the Korea musical elements. In the conclusion, I suggested that the improvisational activity in the piano lesson needs to be accompanied by theory and technic exercises as well as repertoire and that the group lesson environment is preferable. For the last piano teachers need to diagnose the musical knowledge or skill level inherent in the students so as to develop the effective improvisational learning activities in the piano lesson.

Keywords: Improvisation, Musical Creativity, Piano teaching, Piano method, Piano pedagogy

투고일	심사일	게재 확정일
2018년 10월 15일	2018년 11월 10일 -11월 30일	2018년 12월 3일